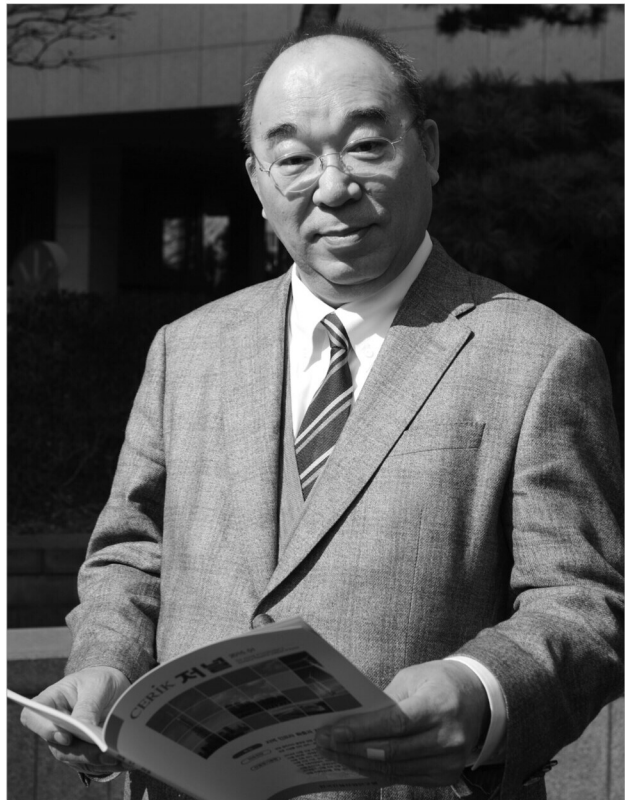


“산업의 융성과 지식의 확대, 학회의 소통에 열과 성을 다할 것”

“위기는 기회이고, 기회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글로벌 경제 침체, 내수 부진 등 안팎의 여러 어려움은 다시 한 번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건설산업의 내재된 가치와 할 일은 무궁하며, 건설인들의 자기 혁신과 약진이 필요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초 대한토목학회 제47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문겸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토목학회가 앞으로 건설산업의 재도약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다가오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적 구성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신업역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첨단·융합 기술로서의 토목공학의 변화를 생활형 SOC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토목공학의 중요성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김문겸 회장을 만나 학회의 주요 사업 계획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해안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김문겸 대한토목학회 신임 회장(연세대 교수)

취임 초 생각하셨던 학회의 미래 모습과 취임 이후 활동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한토목학회는 우리나라 이공계열 학회 중 규모가 가장 큰 학회이며, 창립 65년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5년 가입하여 학회 활동 경력이 30년이 되었으며, 이러한 경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 간 학회 활동을 하면서 늘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 학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원로 선배님들의 뜻을 지키면서 학회의 변화를 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학회의 긍정적인 역할과 사명, 그리고 정체성의 재확립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년 전임 심명필 회장께서 추진하여 완료한 학회 중장기 발전 연구는 시의적절하고, 향후 20년 간 학회의 발전된 모습과 방향이 설정되고 구체적인 목표점이 확인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은 주어진 역할과 위치, 그리고 책임에 따라 시각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회장 취임 전에 많은 생각과 구상이 있었으나 취임 후 현실적인 여건과 환경을 반영하여 실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구상으로 학회를 이끌고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펼쳐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학회의 소통과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올해 취임 초 발표한 사업 계획에 구체화되어 있습니

다. 그 골자는 산업의 융성, 지식의 확대, 학회의 소통 등이며, 이들 핵심 3대 사업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5대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산업계의 의견이 학회를 통해 구체화되고 구현되는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장을 마련하여 이를 사회에 알리는 데 노력하고, 둘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언론 및 사회의 여론에 전문 기술자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적시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고, 셋째, 지식의 확대에 부응하는 토목공학 교육과 자격 체제에 대한 학회의 역할을 실행하고, 넷째, 학회의 소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후속 세대와 지회 회원들이 일할 수 있는 마당을 제시하며, 다섯째, 기술 교육과 출판 사업의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학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수익 사업을 창출하여 재무 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토목산업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의 주력 산업으로 국가 융성을 위해 토목학회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신년 기자 회견에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이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통일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성장 국면을 돌파해 나갈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 노후화된 교통망 등 열악한 SOC 환경으로는 산업시설의 진출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은 개발사업의 전개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준비 없는 통일로 인해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겪어야 했던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 교류 자체가 정치

적 상황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통일과 이에 바탕한 국가 융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들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북한 SOC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현황 파악입니다. 지회 학회를 비롯한 여러 연구소에서 북한의 SOC 시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왔고, 일부 건설업체들이 개성공단 조성, 남포공단 내 공장 건설 등 여러 협력 사업 경험을 가지고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정리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로, 남북 교류를 위한 국내 기업의 북한 SOC 사업 참여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경제특구를 핵심 거점으로 투자를 집중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이들 지역을 교통·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자연 재해 및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토목공학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과 직결되는 분야가 바로 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과 같은 생활형 SOC입니다. 이들 시설은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자연 재해와 안전사고 등의 위협과 연결되면 복합적이고 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설물입니다. 생활형 SOC는 경제 발전이 급격히 진행되던 1970~80년대에 많이 시공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잠재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잇따른 상하수도 파열에 따른 교통시설 마비와 주민 생활 불편이나 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도로 함몰 사건은 이러한 위협의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서 토목 기술은 기존의 시공성 개선 중심의 기술 개발과 함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발전된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설물의 상태 분석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전반적인 전략과 적정 평가 기술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생활형 SOC가 지하에 매설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동화 기계 및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사후 대응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사전 예측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목공학은 인류 문명과 시작을 함께한 전통의 학문으로서 인문학과의 연계성 역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 타 학문 간의 기술 또는 지식 융합의 가능성과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 주변의 도로나 항만과 같은 제반 SOC 시설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히 공학적 지식의 산물일지 몰라도, 이를 결정하기까지 법, 경제, 문화 등 모든 인문·사회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토목공학은 우리가 접하는 공학 분야 중 인문학적인 성격을 갖는 동시에 그 자체가 융합적인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목산업은 ICT, NT, BT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융합되며 이미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U-city, 스마트 라이프라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과 같이 보다 패키지화된 상품으로서의 미래 사업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이에 바탕한 신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시장의 개척은 비단 건

설시장 진출 지역의 다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 에너지 등과 같이 SOC에서 얻어진 생산물에 대한 선물시장을 구축하는 등 산업의 확장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토목공학은 지식의 확장과 융합으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각 산업 분야에서 열정과 경쟁력을 갖춘 젊은 인력들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목 분야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 토목산업은 과거 국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침체 가운데서도 연간 70조원의 해외 수주로 조선, 자동차와 함께 우리 경제 발전에 충성스러운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젊은 토목인인 중 고등학생의 토목산업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데다가 부정적이며,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위축에 따른 취업난으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만한 충분한 동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는 경쟁 심화로 우리 건설 인력의 글로벌 역량 제고 또한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편견에 가까운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목공학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첨단·융합 기술로서의 토목공학의 변화를 생활형 SOC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토목공학의 중요성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에서는 글로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그리고 다학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술

중심의 체계화된 커리큘럼을 생성하는 한편 엔지니어가 법, 경제 등의 인문·사회적 소양을 갖추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동시적인 이해가 가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겠습니다.

2011년 건설 기술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시기도 하였습니다. 토목인으로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자긍심과 보람을 느꼈던 때는 언제이셨는지요?

제가 토목 기술자로서, 교육자로서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했던 바에 대한 작은 실천과 노력들을 홍조근정훈장이라는 큰 상으로 크게 평가해주셔서 아직까지도 감사하며 한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국가와 건설산업의 발전에 더 이바지하라는 격려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토목인으로 살아온 지난날 모두가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토목공학은 공학이라는 범주에 있기는 하지만 인류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 공학과 인문학적인 지적 욕구를 모두 만족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등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기쁨을 주기도 했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국책사업으로 '첨단융합건설기술개발사업'의 연구단장을 지냈던 것입니다. 융합 기술 테마를 기획하기 위해 발족된 연구단으로서는 최초였고, 건설 융합 기술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던 건설산업에서 융합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CERIK

글 : 이형우 편집장 사진 : 하선목